

MVP 2015. SUMMER(No.43)

# 벤처선교

## 세계화와 선교

낯설지 않은 나라 우즈베키스탄

디아스포라 대상 선교운동 일으키기

선교사가 쓰는 글의 가치

인테리어 사업을 꿈꾸고 도전하다

사랑, 그 끝없는 현실

28일간의 무스타포 치료 일기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덕포교회 선교학교 이야기

그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여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4)



### 이사장 신동우

실행이사 신종렬 이종훈 이훈민 정우길 조명순 지경준 한정국 한천희 흥성원

협동이사 김동해 김만형 박삼열 이수진 이지호

본부장 한수아 | 행정 총무 이갈렙 | 훈련 동원 총무 전상일

벤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구영삼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홍빈 |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부원장 김승관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인애 | 연구원 윤정 | 협력연구원 강원국 김소윤 오요셉 이영배 전해솔

본부간사 권선주 김민숙 문현심 이현 전해솔

협력간사 김아영 손인종 윤여광 조대상

발행인 신동우 | 편집인 한수아 | 교정 김인애 | 편집 · 디자인 김민숙 윤여광

발행처 MVP선교회 | 발행일 2015년 7월 20일 | 발행부수 1500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67(망원동 378-11) 그린빌딩 5층

이메일 mvpok01@gmail.com | 홈페이지 www.mvp.or.kr

전화 02)703-1215 | 팩스 02)703-1216

# Contents

여는글	04 세계화와 선교   한수아
—	
현장	05 낯설지 않은 나라 우즈베키스탄   송종섭
	08 디아스포라 대상 선교운동 일으키기   탁요셉
	11 선교사가 쓰는 글의 가치   이계절
	14 인테리어 사업을 꿈꾸고 도전하다   장승리
	17 사랑, 그 끝없는 현실   누사배
	20 28일간의 무스타포 치료 일기   이갈렙
	24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정찬송
—	
훈련	26 덕포교회 선교학교 이야기   김경문
—	
새소식	28 MVP선교회 새소식입니다
	30 선교사 소식 및 본부 후원자
	31 선교사 가상계좌

# 세계화와 선교

한수아 선교사 / 본부장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환경을 들라면 세계화를 우선적으로 꼽을 것이다. 물론 세계화는 21세기에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로마-헬라, 몽골제국, 서구열강, 동서냉전체제 등의 세계화가 있었다. 그것들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세계화였으며 전 세계에 영향을 주지도 못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그 이전의 것과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이는 경제 권력에 의한 세계화이며 그 영역과 영향력은 전 지구로 확대되었다. 경제적 세계화란 노동력 자본 상품의 이동에 따라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세계가 경제공동체로 통합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세계화라고도 부른다.

경제적 세계화 외에도 세계화를 추구하는 힘(세력)이 있다. 바로 이슬람이다. 이슬람은 이슬람 공동체를 전 세계에 구축하려한다는 면에서 세계화를 추구한다. IS같은 급진주의 군사 이슬람에 의해서 그 영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증가에 의해서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화되고 있다. 최근 아랍세계의 변화는 선교 기회가 되고 있지만 이슬람은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배후에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국가에 있다고 보고 기독교에 대한 경계와 박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세계화는 순수한 사회경제적 현상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해 세속화와 맘몬을 전파하는 하나의 거대한 종교운동이다. “세계화는 그 저변에 진보라는 신화가 깔려있고 그 기초에는 무한한 경제성장을 믿는 신앙이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주의라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표방하면서 “나는 빅맥세트를 먹을래”로 첫 의식을 시작하는 세계적인 지배를 최종목표로 꿈꾸는 새로운 종교다”(브라이언 월즈)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은 이주자 선교와 비즈니스선교 등 경제적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선교적 기회를 이용하면서도 세속화와 맘몬이라는 우상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현재 기독교선교는 이슬람과 자본주의적 세계화라는 대항적인 종교적 힘과 충돌하며 하나님 나라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의 종교적 성격을 이해하고 맘몬과 이슬람의 세계화를 대항해서 스스로를 무장하며 강력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MVP



# 낯설지 않은 나라

# 우즈베키스탄

송종섭 선교사 / 우즈베키스탄

## 1. 우즈베키스탄 소개

중앙아시아라 함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말하며 “스탄”이란 “땅”이란 뜻입니다.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독립국가연합)권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9월 1일에 72년간의 러시아 통치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1개의 자치공화국과 12개주로 구성 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입니다. 과거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이슬람 문화와 유럽식 러시아 문화가 융화된 독특한 생활양식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CIS 15개국 중 다섯 번째로 큰 나라이며 남한의 약 4.5배입니다 그러나 국토의 70%가 황무지와 신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남부지역 천산산맥으로부터 시작되는 시르다리아강과 아무다리아강은 우즈벡 영토를 가로질러 아랄해까지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들 두 강을 끼고 형성된 오아시스에 형성 되어있으며 농경지도 강 주변에 있어 강 주변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인구는 29,000,000명이며 125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우즈법인 80%, 러시아인 4%, 카자흐인 3.6%, 고려인 0.6% (약 15만 6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은 독립 전 35%에 달했으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1937년 극동으로부터 강제 이주된 고려인도 1990년도에는 22만 명이 거주 하였으나 독립 후 러시아등지로 이주하여 감소하였으며, 고려인 집단촌에도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경교란 이름으로 기독교가 들어 왔으나 7세기 이슬람 연합군이 텔라스 전투에서 고선지 장군에게 승리함으로서 이슬람교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슬람교 88%, 러시아 정교 9%, 유대교 0.5%, 기독교, 천주교, 불교, 샤마니즘 등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나 인가된 장소에서 허가된 시간에만 종교 행위가 허용되며, 선교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교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추방되거나 벌금 내지 구금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허가된 현지인교회, 러시아교회, 한인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하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일단 교인이 된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공식적인 언어는 우즈베크어이며, 공용어로서 러시아어를 씁니다. 러시아어를 알면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으나 타쉬켄트를 벗어나면 젊은 세대들 가운데 러시아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2004년부터는 100% 우즈베크어로만 공식서류가 발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계와 우즈베크를 모르는 고려인 등 소수 민족들은 입지가 좁아져 우즈베크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매년 7-8%의 경제성장을 과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탄탄한 수출과 국내투자의 증가, 지하자원의 개발로 앞으로 더 큰 성장이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개발, 광산개발, 건설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품은 목화(생산량 세계4위), 천연가스, 금(매장량 세계 5위), 우라늄, 석탄, 구리, 납, 텉스텐, 주석, 동, 몰리브덴, 중석, 아연 등과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및 농산물입니다.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금속제품, 화학제품입니다. 석유도 자국 수요를 충당할 정도는 매장 되어 있습니다.

## 2. 활동 사역

### 1) G 교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교회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교 회와 같이 현당하고 현지 목회자가 시무하고 있습니다.



### 2) 장애인 돋기

자녀들을 키우며 어렵게 혼자 살아가는 고려인 시각장애인들을 6년간 도와 왔습니다. 매월 방문하여 생활비를 주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재 열심히 교회에 봉사까지 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철수하고 나오면서 한인교회 권사 일부 회원이 돋고 있습니다.

### 3) 신학생 장학금 지급

마음대로 선교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신학생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간접선교가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되어 신학생들을 돋기 시작하였습니다. 1991년 독립 직후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여 운영해오다가, 그 선교사가 귀국하면서 한인교회에 위임 하였으며 지금은 한인교회가 운영 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인원이 연 20명이나 개개인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입학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년 46명 정도가 허락을 받는 실정이며, 우즈법인은 2013년 졸업생 이후 허락 된 자가 없습니다. 후원한 신학교 졸업생은 러시아인, 고려인, 우즈법인들이며, 현재 1학년 재학생 2명이 수업 중이며, 6년간 졸업자 12명과 중퇴자가 2명입니다.

#### 4) N 재활원 봉사

20년 전에 미국의 한인교포가 설립하였으며 장애인들에게 의족의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비틀어진 수족을 교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은 독지가와 미국정부의 후원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지기기제조협회와 공동으로 의지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현지인을 양성하여 후임을 키울 예정입니다. 원장 본인도 17세에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80이 넘은 연세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폐에 이상이 생겨 치료차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15년 3월 새로운 원장에게 인수인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수속 중입니다.



#### 5) B 장애고아원

가정에서 장애인 노출을 꺼려할 뿐 아니라 국가도 그런 경향이 있어 처음에는 장애아들을 수용한 고아원이 있다는 것을 숨겨 왔습니다. 미국인들의 노력으로 개방이 되었으며 시설보수를 도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0-16세까지 약 280명의 장애고아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재활 훈련이나 교육은 열악한 편이고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2013년 6월 1일(어린이날)은 아이들을 선발하여 공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놀이 기구도 타고 음식도 사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사랑이 그리워 안아주고 놀아주기를 바라며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이들 장애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선교사가 파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1. 러시아어 기도회(예배)를 같이 추진할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2. 러시아어권에서 온 다문화가족, 근로자 및 유학생들을 자국 선교사가 되도록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3. 시각장애인 15명(고려인)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 디아스포라 대상 선교운동 일으키기

탁요셉 선교사 / T국

## 서론

### 페르시아권역의 난민/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도전

페르시아권역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의 3국과 쿠르드 종족권역(이란/이라크/쿠르드/시리아 분포)과 발루치 종족권역(이란/아프간/파키스탄분포)을 포함합니다. 2000년대 전후로 페르시아권역이 선교적으로 열려 역동적인 개척이 일어나다가, 2007년 '카불 평화행진', '분당샘물교회 피랍사태'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국인 사역자들이 대거 추방되고 이후 입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대통령부정선거로 이란 국내 상황이 어렵게 되어 대부분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그 나라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전, 정치·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에 불안을 느낀 아프간인들은 터키, 타지키스탄, 이란, 파키스탄, 그리스도 상당수 이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이 터키와 말레이시아에 난민, 유학생 또는 비즈니스맨의 신분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선교를 하는 것은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구직을 위해 러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을 포함한 디아스포라가 최소 100만~150만 이상입니다. 쿠르디스탄(터키/이란/이라크/시리아에 흩어진 3천만 명 이상의 쿠르드 종족지역)과 발루치스탄(아프간/이란/파키스탄에 흩어진 발루치 종족 지역) 역시 선교적 접근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처럼 페르시아권은 선교적 접근이 쉽지 않을뿐더러, 난민/디아스포라 형태로 많은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들의 이동에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슬람 공동체에서 나온 이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미 선교적 부흥과 고난을 어느 정도 경험한 이란 신자들의 경우는 새로운 도전과 부르심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는 90년도 중·후반부터 종족중심의 선교와 전략을 많이 홍보하고 실행하려 노력했지만,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국가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와 다시 들어갈 수 없는 많은 선교사들은 전혀 다른 국가, 전혀 다른 종족을 찾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페르시아권 나라들이나 터키에 아프간인들이 난민이나 이주자 신분으로 있는데도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난민, 디아스포라 선교는 종족중심의 패러다임을 분명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역입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아프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거나 터키에서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사역자 자신이나 교회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UNHCR 2015 planning figures for Turkey*					
Type of population	Origin	January 2015		December 2015	
		Total in country	Of whom assisted by UNHCR	Total in country	Of whom assisted by UNHCR
Refugees	Afghanistan	3,930	3,930	3,930	3,930
	Iraq	25,470	25,470	37,470	37,470
	Syrian Arab Rep.	1,500,000	1,500,000	1,700,000	1,700,000
	Various	12,070	12,070	17,070	17,070
Asylum-seekers	Afghanistan	32,330	32,330	42,330	42,330
	Islamic Rep. of Iran	10,250	10,250	14,250	14,250
	Iraq	43,070	43,070	67,070	67,070
	Various	5,820	5,820	6,820	6,820
Stateless	Stateless	330	-	550	-
Others of concern	Russian Federation	310	-	310	-
<b>Total</b>		<b>1,633,560</b>	<b>1,632,930</b>	<b>1,889,780</b>	<b>1,888,930</b>

\* PoC planning figures in this table are based on trends and registration data from early 2014. In light of the evolving situation in the Syrian Arab Republic and Iraq, updated projections will be presented in any forthcoming appeals for supplementary requirements in 2015 for the Syria and Iraq situations, including the 2015 Regional Refugee and Resilience Plan (3RP).

## 본론

### 1. 터키 내, 이란/아프간 난민 상황 및 선교 도전

현재 터키 내 이란인 난민들은 20개 이상의 도시에 가정교회를 세워 잘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신자 수는 최소 2,000명 이상이며 40여 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니줄리’(터키 남서부, 이즈미르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이란 교회가 있는데 신자가 150여명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200여명이나 됩니다. 이런 교회는 이란인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며 상당한 영적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닌 목자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10~20여명 규모의 작은 가정교회들도 많습니다. 열악한 면도 있지만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이며 서로 격려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사역자들이 터키 내에 이란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의미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터키로 들어온 아프간인 난민들은 수년내지 30년간 이란에서 살다가 터키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아프간 다리어 발음보다는 이란식 발음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오랜 기간 이란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간 몽골계 하자라 종족으로서 시아파 무슬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앙카라에 위치한 난민등록기관인 ASAM(Association for Solidarity with Asylum Seekers & Migrants)을 찾는 아프간인들은 이란에서 살다 온 사람보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을 경유하여 터키로 온 사람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략 4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터키의 각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더 많은 아프간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란 및 아프간 난민들은 난민캠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같이 도시 내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기에 접촉이 자유롭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래 들어 내전 및 IS(Islamic State)의 공격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등의 중동 아랍계 민족이 터키 국내로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인은 170만 명, 이라크인은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구제활동 등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하기 표 참조).

터키 현지교회들은 난민들에게 무관심하다가 최근 들어 구제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선교적 관점으로 난민들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 2. 터키 내, 이란/아프간 신자들을 통한 선교 전략 : 난민선교 & 선교개척운동

페르시아와 중동 무슬림들의 이주는 이슬람 선교에 있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도를 타야 할 지역은 터키이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 여겨집니다. 현재 페르시아권과 중동권 선교에 있어서 난민/디아스포라 선교는 더 이상 아웃사이더 선교가 아닌, 핵심 선교이며 이는 수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다시 각 나라가 열릴 때까지 미래의 중요한 자원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터키 내 이란인 신자들의 경우,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란인만큼 교회의 부흥과 헌신이 급진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없기에 이들의 터키로의 이주는 선교 전략 수립과 선교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터키는 중동과 유럽,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교적으로 파급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와 중동 아랍 민족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터키 교회 개척운동 뿐만 아니라, 각 종족들을 넘어서는 선교개척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개척운동이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란인 신자들의 역할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교회개척이 아니라 종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사역할 현지인 선교자원 양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터키 내의 아프간 민족과 아랍권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교개척운동은 오랜 기간 선교적으로 침체기에 있었던 터키선교와 터키현지교회에도 큰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 결론

최근 제5차 '실크로드 선교포럼'이 터키에서 100여명의 시니어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요 실행 전략으로써 터키/중국/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난민/디아스포라 선교와 선교운동/훈련에 대한 조직을 세우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이고 많은 협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급격히 변화하는 이슬람권 상황에 대한 적합한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키와 페르시아권역, 그리고 중동의 아랍권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파도들을 바라보면서, 정체되어온 이슬람 선교에 새로운 방향성, 창의적인 전략, 적합한 시스템과 배치가 이루어지고, 헌신과 열정 속에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선교운동을 통해 현지인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서 그들에 의한 교회개척운동과 선교개척운동이 일어나기를 열망합니다. MVP

# 선교사가 쓰는 글의 가치

이계철 선교사 / 예수전도단, MVP선교회 협력선교사

## 글의 가치 인식과 우선순위 정하기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선교도 마찬가지니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김춘수의 〈꽃〉을 감상해 보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중략)//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잊혀 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산다는 것은 의미 없는 ‘몸짓’에서 의미 있는 ‘꽃’과 ‘눈짓’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공인이 제대로 된 자료 하나 물려주지 않고 생을 마감한다. 글은 ‘꽃’과 ‘눈짓’을 창조하는 것이다.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을 글로 남기는 작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스트레스 많은 타 문화 속에서 글을 쓴다는 일이 그리 농녹치 않다. 그러나 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선교지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우선순위에 글을 쓰는 것을 포함시킨다면 글을 쓰기가 수월해 질 것이다. 연애처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는 것처럼 글이 후배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역사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도전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안식년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몸짓’만 하게 된다. 스마트폰만 쓰지 않아도 하루에 두 세 시간을 절약하여 글을 쓸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실제로 스마트폰을 끊어 독서와 글쓰기에 할애하고 있다.

## 글 평가 잣대와 완성 과정

글쓰기를 우선순위에 배정했다고 해서 바로 글을 쓰면 큰일이다. 독자들로부터 오 마이 갓!을 들을 수도 있다. 대상 독자, 내용, 분량, 출판 방법 등에 앞서 자신의 글 내용이 '가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즉 자신의 사역이 제대로 된 사역인지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글을 남기면 그것은 볼품없는 꽃, 금방 시들 꽃, 눈의 초점을 잊은 눈짓이 되어 얼마 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글을 평가할 것인가.

먼저, 글이 사역과 관계된 내용이라면 4자 원칙-자립, 자치, 자전, 자신학-을 잣대로 삼을 수 있다. 선교 열매가 많다고 해도 현지인들이 선교사에게 재정적 또는 각종 혜택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자립이 되지 않은 것이고, 현지인에게 권력을 이양하지 않고 선교사가 여전히 회의와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등 왕 노릇하고 있다면 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고, 현지인들이 스스로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자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현지인들이 자신의 문화 안에서(한국 문화나 서양 문화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자신학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자신학은 복음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한다. 나는 지금까지 4자 원칙에 반대하는 선교지도자나 선교사를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 안타깝게도 다양한 이유로 모두가 4자 원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이상적인 선교 전략으로서 4자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칙을 추구하고 있거나 근접하고 있다면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교 지도자나 선교학 교수에게 검증을 받으라. 검증도 받고 추천서도 받으면 일석이조다.

마지막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문장을 다듬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조언을 요청하라. 이 과정에서 돈이 좀 들 수 있다. 누구나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니므로 교정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매끄럽지 않은 글은 독자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라.

위 과정을 거친 후에 출판을 할 것을 권한다. 자가 출

판과 출판사를 통한 출판이 있다. 출판사를 통해 독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책을 접하기 쉽다. 만약 자신의 글 내용 검토, 문장 다듬기, 그리고 출판사 정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필자가 도와줄 수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선교 지도자,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출판사를 연결해 줄 수 있다. korengsofm@hotmail.com

##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사역에 대한 자신의 글 주제가 4자 원칙을 무난히 통과했거나 근접했다면 이제 노트북에서 세종대왕의 후손답게 한글을 열자. 어떤 글을 쓸 것인가는 자신의 관심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지역조사에 도전해 보자.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더불어 기도제목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만들어 자신뿐 아니라 후배 선교사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사실만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아마도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을 것이다. MVP 선교회에서 만든 다음과 같은 지역조사 자료들을 참고해 보자. 산외에는 친구가 없는 쿠르드족을 찾아서(MVP), 실크로드 길이 아니라 사람이다(김인), 북인도행 열차(MVP).

다음으로 수필과 전기문을 써보자. 평소의 갖가지 상념을 간단하게 기록해 두었다가 시간이 날 때 또는 암식년 때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재는 복음의 돌파를 보며 느끼는 기쁨, 현지인 또는 선교사와의 갈등과 화해, 현지인 형제 또는 자매를 보며 느끼는 로맨틱한 감정, 선교사로서의 올바른 자세, 삶에 대한 고뇌와 성숙, 현지 문화(음식, 축제, 세계관 등) 소개, 자녀 성장기, 부부간의 갈등과 사랑 등 다양하다. 다만 이 때도 내용이 사역과 관계된 것이라면 먼저 4자 원칙을 잣대 삼아 스스로 검증하길 바란다. 글을 쓰는 목적은 '꽃'과 '눈짓'이 되는 것이지 의미 없는 '몸짓'으로 남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봇 가는 대로 써서는 안 된다. 필자도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담은 수필 <인도에서 자전거 함께 타기 1>와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쓸 때 4자 원칙

과 선교지도자의 주장을 참고했다.

평소의 감정이나 에피소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를 추천한다. 카카오톡의 경우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 자취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자료 저장용으로 좋지 않다. 정말 글을 쓰고 싶다면 복고풍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위에 훌륭한 선교사가 있다면 그분에 대한 전기문을 써보자. 우리 시대의 훌륭한 선교사를 발굴하는 것은 수백 수천 년을 바라보는 위대한 일이다. 다른 글 보다도 수필을 쓰는 일은 즐거움을 준다. 아무래도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장르라서 그런 것 같다. 수필을 쓰는 시간 자체가 미소를 회복하게 하고 선교지에서 받는 갖가지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미술 치료와 음악치료처럼 글도 인간의 감정 깊은 곳을 울리기 때문이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모두를 대상으로 선교지 문화에 대한 글을 쓸 수도 있다. 필자는 한국인으로서 인도 문화를 체험한 것을 『슬리퍼 신고 76세 할머니와 히말라야를 등정하다』에 담았고 곧 영문으로도 출판될 예정이다.

수필과 전기문을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평단), 『피를 나눈 형제』(예영), 『선교사 열전』(복 있는 사람).

연구 논문과 도서도 있다. 논문을 많이 써본 사람은 선교지에서도 논문 쓰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연구 논문이나 도서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자료를 모아두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의 논문 몇 편과 『인도에서 자전거 함께 타기 2』도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쓴 것이다. 딱딱한 논문을 쓰고 싶지 않다면 생활 속에서 재미있는 주제를 찾아 논문을 쓸 수도 있다. 아라비아반도의 한 지역에서 MVP 소속으로 단기선교를 한 김슬아 자매가 쓴 “부레이미 깊은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여가”가 좋은 예다. 현지인 여성들에게 직접 물어봐 글을 썼다. 재미도 있고 여성들의 삶을 알아야 여성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도 있는 글이다.

연구 도서나 논문으로 좋은 책은 다음과 같다. 선교타임즈에서 발행하는 『전방개척선교』, 한국형선교개발원에서 만드는 『KAM JOURNAL』, 『단기선교 가이드북』(선교한국). 『타 문화 사역과 리더십』(CLC). 『퍼스펙티브스』(예수전도단). 『범세

계 교회를 위한 상황화 이론과 실제』(한국해외 선교회출판부).

마지막으로 소설도 좋다. 학창시절 문학소년 또는 문학소녀의 꿈을 꿨다면 선교지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되새겨 보자.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야기 형식으로 현지 문화를 소개하거나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처럼 복음 전파의 장애물을 조사하고 이상적인 선교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필자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수필을 소설 형식에 담은 작품으로 누구나 미소 지으며 바람직한 선교방법을 고민하도록 했다.

## 선교훈련에 글쓰기 과목 넣어야

현장 선교사들이 글을 써야 선교 역사가 잘 기록되어지고 선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글이 풍부해 진다는 것을 안다면 선교단체도 선교사들에게 글쓰기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2013년에 한국 세계선교협의회(KWMA)에서 선교사 글쓰기 주제로 강의를 마련한 것을 봤다. 필자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모든 단체가 선교훈련 때 글쓰기 과목을 넣어 ‘꽃’과 ‘눈짓’이 되라고 강조하면 어떨까? 선교지에서 글을 쓰는 일은 선교사의 삶을 ‘몸짓’에서 ‘의미’로 바꾸는 중요한 것이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글 쓰는 그 자체가 평정심을 회복하게 하고 삶에 활력도 준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사도 바울을 비롯해 누군가 글을 썼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료를 남기지 않는 많은 선교사보다 자료를 남기는 한 명의 선교사가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자. 펜이 칼보다 더 강하다는 말은 선교사에게도 해당된다. MVP



# 인테리어 사업을 꿈꾸고 도전하다!

장승리 선교사 / K국

## 1. 그 곳에 필요가 넘치고 있다

K국에서 만난 가정교회의 리더인 A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자녀 둘을 둔 가장입니다. 젊은 시절 10년간 마약중독자였고, 중간에 절도죄로 8년을 복역하고 나온 전과자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네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이면서, 10여명이 모이는 가정교회 리더입니다. 가정교회 교인들 중에는 어린 자녀를 둔 미혼모와 치료가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 딸을 둔 가난한 부부를 비롯하여 그 나라의 소외계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돈을 벌고자 노력했던 이유는 자신의 윤택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최소한의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약중독과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그가 이슬람국가에서 더욱이 기독교인으로서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맑고 건전한 정신과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모님의 유산인 낡고 작은 승용차 한대로 자가용 택시영업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 버는 충분치 못한 수입으로 가족을 돌봤고, 가정교회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매주 모임에서 갑자와 뺑을 사서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모임에 온 미혼모와 그녀의 어린 아들에게 조용히 전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A처럼 헌신된 현지인 그리스도인과 협력해서 사역을 할 때, K국의 선교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의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부흥을 일으킬 한 사람을 세우길 원합니다. 사도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사역자가 되도록 도와준 아나니아(행9장)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분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K국 현지인이 K국 지방이나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인접국에서 사역할 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도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교회들이 이들을 파송하여 경제적인 부분까지 책임지기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헌신된 현지인들이 타 지역으로 사명을 품고 나아가 영혼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 2. 적합한 비즈니스를 찾다

현지 사역자들의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K국에서 할 수 있는 적합한 비즈니스가 무엇일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이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빈 손으로 사역지에 나가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어야 한다. 둘째, 그 기술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수요가 충분해야 한다. 셋째, 한국인 사역자로서 그들을 돋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안식년과 본부사역을 겸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테리어 사업의 가능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K국 사람들이 집을 꾸미기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서비스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필요한 자재를 사고 인부도 고용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종합 인테리어 사업이 비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국의 지방 및 인근 국가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만약 함께 일하는 현지인이 도배, 미장, 래핑, 타일, 목수, 전기, 설비 등을 습득하여 숙련공이 된다면, 어디에서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테리어 기술은 수준급입니다. 만약 한국의 인테리어 회사가 현지에 진출해서 사업을 한다면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 3. 함께 BM을 꿈꾸다

현지에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되, 기술습득이 필요한 현지인들을 한국 본사로 보내어 배우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 숙련공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현지와 한국에서 선교사역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은 필수입니다. 한국에서 이 비전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공동체가 필요하며, 현지에서 함께 비전을 품을 현지인 가정교회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작년에 교회공동체에서 인테리어 사업 경력이 있는 형제 두 사람과 이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업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일이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두 형제는 인테리어를 통해 비즈니스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한국에서 사업을 직접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준비한 후 K국에 지사를 세우기로 계획했습니다.

#### 4. 몸으로 일을 배우다

201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자본도 없고, 개인회사 규모로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분명했고, 인도하심이 분명했기에 셋이 함께 모여 새벽기도부터 꾸준히 하면서 하나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회공동체에서도 우리 비전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었기에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1월 중순, 아무 경험도 없던 저에게 인천남동공단에서 방음공사 현장에 일당을 받는 잡부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주간 그 일을 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복음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같은 처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하는 노동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2월에는 실내장식용 주문제작가구 사업이 연결되었습니다. 경험 없고 인맥 없는 우리에게 적절한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경기도 광주, 곤지암 등지의 많은 공장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가구 납품, 홍대 앞 네이버프랜즈 매장의 판매대와 가구 설치 등의 일을 했습니다. 가구납품을 통해 나무와 합판의 종류와 가공방법, 가구제작을 위해 필요한 과정과 공장 관리, 금속의 종류와 가공방법, 용접, 레이저가공, 가죽의 종류와 가공까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가구 및 자재의 유통은 한국의 본사를 키우고 현장과 연결하여 일하기에 좋은 사업 분야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못했지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주신 좋은 사업기회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4월에는 성남에 있는 닭갈비집 인테리어 공사가 연결되었는데 일부를 고용하기보다 직접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레탄도장이 되어있는 바닥을 벗겨내는 철거부터 부엌을 만들기 위해 벽돌 쌓는 조직 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를 했고 벽체와 천장의 도장공사와 노출바닥 시공까지 해 볼 수 있는 공사들은 직접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전기공사와 설비공사, 불박이장 공사와, 공조공사, 타일공사 등은 협력업체를 불러 시공하면서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회전공구인 그라인더를 돌리고, 전동드릴을 사용하고, 삼으로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이기고, 벽돌을 나르고 쌓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찾고 예배하였습니다.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경험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치과 병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90평 치과를 완전 리모델링하는 공사인데 7월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치과병원 공사는 인테리어 현장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월급이 책정된 현장소장으로서 견적을 받아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순서와 진행을 파악해서 전체를 관리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5.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배우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에 전망이 분명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2015년 상반기 중에 한국에 모회사가 될 법인을 세우고, 2016년 초에 K국에 회사를 세워 실제 수주를 하고 현지에서 기능공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반기에 현장 조사 및 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꿈꿨던 대로 성과를 내서 가정교회 지도자를 돋고, 재정적으로 자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앞으로 더 열어가실 것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의뢰하면 주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K국 뿐 아니라 그 주변국가까지 인테리어를 통해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섬기는 꿈을 이루도록 도우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MVP



스물아홉 살, 혈기왕성, 단순무식한 청년 선교사로 미얀마를 밟았습니다. 열정 가득한 청년이기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대나무로 만든 집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엠브이피(MVP) 간사생활을 할 때도, 파송준비를 할 때도 저는 주님께 '주님의 재림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여야 해요! 꼭 선교지에 있을 때 오세요!'라는 무례한 기도를 할 만큼 선교지에 나가 현지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미얀마에 오기 전, 현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 어느 정도 고난과 어려움들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날마다 신기한 모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의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싫지만 공생해야 하는 도마뱀과 모기, 커다란 바퀴벌레, 덥고 습한 날씨, 가끔 등장하는 쥐,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우기가 되면 어김 없이 하수도가 역류해서 도로는 더러운 물로 가득합니다. 그 물에 발을 담그고 다녀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끝없이 퍼주었건만 만족하지 않고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선 살갑게 웃지만 곧 배신하고 뒤돌아가는 사람들, 매일 선교지에 대한 로망을 하나씩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했습니다.



## 출판사를 통한 사역

첫 사역지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 땅을 밟은 지 꼭 6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올 때 저는 그 어떤 사역 계획들도 세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2년간 언어공부를 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과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필요한 곳에 헌신하며 순종하기만 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일상이 분주하고 바쁜 한국에서 살다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미얀마에서의 생활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일상의 삶을 살며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고, 시대에 뒤쳐진다는 생각에 조마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씩 언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출석하고 있던 현지인 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심방, 예배에 참석하며 사역을 위한 준비들도 차곡차곡 했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6년의 시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사는 삶이 그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 더 기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더디지만 벼마종족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것,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언어실력이었지만 미얀마에 온 지 1년 3개월 만에 신학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으니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다녔습니다. 시내에 있는 큰 기독교서점은 말할 것도 없고 제법 규모가 큰 신학대학에도 기독교 교육 관련 서적 한 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소 사진 찍고, 글 쓰고, 편집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기독교 교육 현실을 보게 하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번역하고 출판사역을 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자도 없을뿐더러 이 분야가 매우 취약한 분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글 쓰고, 사진 찍고, 편집만 할 수 있는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도 있었으나 주께서 인도해주시는 대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술한 어려움 속에서도 6년의 시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사는 삶이 그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 더 기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더디지만 벼마종족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것,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서툴고 더디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하고 끝까지 가렵니다.



이 땅에 생명수로 오신 예수님을 버마종족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에 출판사 이름을 뗇산예(생명수)출판사로 지었습니다. 미얀마에는 에야와디라는 미얀마 중부를 관통해 흐르는 큰 강이 있습니다. 이 에야와디강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젖줄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이 강에서 씻고, 이 강물을 마시고, 이 강 주변에서 살아갑니다. 생명수 출판사가 미얀마 종족들에게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벌써 5권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도 있고,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도 있습니다.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위한 책도 있습니다. 번역과 출판을 위한 작업들은 계속합니다. 출판된 책들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전해져 읽히기도 합니다. 한 버마족 자매는 책을 읽고 난 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의 청년은 희생과 헌신의 삶이 본인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생각했는데 책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 헌신을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제가 지금은 책을 만들고 책을 통해 이 땅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번역과 출판사역을 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지체들이 이 작은 책 한권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MVP



# '무스타포와 아腼마'의 28일간의 병원생활 이야기

- 하늘 아버지가 어린이날 선물로 온전한 얼굴을 주시다 -

이갈렙 선교사 / T국



### <5월 5일 어린이 날>

‘무스타포’와 그의 아빠는 5월 5일 ‘어린이 날’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사진으로만 보다가 막상 만나보니 3돌이 채 되지 않은 정말 작은 어린 아이였다. ‘무스타포’가 9개월쯤 되던 어느 날 누나의 실수로 뜨거운 물주전자 가 옆어졌고, 방에서 기어 다니고 있었던 ‘무스타포’는 온 얼굴과 가슴까지 중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깊은 산골에 살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수도 ‘두산베’에 있는 가장 큰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타직 의사들이 피부 이식 수술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꿰매는 바람에 턱이 가슴에 붙어 고개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무스타포’를 고칠 수 없게 된 아빠와 엄마는 늘 죄책감 가운데 지내왔고 아이는 아프다는 평계로 응석받이로 자라 공갈젖꼭지조차 떼지 못한 상태였다.

---

### <5월 6일 수술>

어린 아이를 수술실로 보내는 것은 제3자인 내가 보기에도 안쓰러웠다. 무스타포 아빠는 대기 시간 내내 초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수술실에 들어간 지 다섯 시간쯤 지나 무스타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지 아이가 많이 울었다. 아빠는 그날 점심까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 <그 후 열흘 간>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매일 병실을 방문해서 통역을 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통역이 전화로 이루어졌다. 새벽에도 전화가 왔고, 한밤중에도 왔다. 통역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미처 몰랐다. 아이 아빠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을 너무 불안해하고 불편하게 생각해 매일 잠깐이라도 방문해야 했다. 며칠간 지방 출장을 다녀와 병원에 가보니 여전히 무스타포는 많이 울고 있었다. 아빠랑 단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의사나 간호사만 나타나면 울었다. 나도 의사로 생각하는지 가까이 가기만 하면 엉엉 울었다. 아직도 수술 부위가 많이 아팠던 모양이다. 2주 정도 지나서야 겨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

### <성경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다>

'무스타포'의 고향은 이슬람이 아주 강한 산골마을이다. 그의 아빠에게 노골적인 전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무스타포를 보낸 동료 사역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처럼 전도해야 했다.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직접 전도는 하지 않더라도 성경 이야기는 읽도록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스타포 아빠는 말이 통하지 않는 병원에서 아주 심심해했다. 기회다 싶었다. 그에게 구약 성경 가운데 구속의 의미가 깊이 배어 있는 룻기를 읽도록 했다. 타직어 성경에서 장절 표시를 다 빼고, 어떤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얘기하고 프린트해서 주었다.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린 아이 아빠는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스더를 프린트해서 주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처음 읽어보았다면서 '당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어디서 가져온 거냐'라고 물기도 했다. 며칠 간 뜰을 들이며 좀 더 심심해 할 때를 기다렸다가 '다니엘서'를 프린트해서 주었다. 에스더와 동시대 이야기이고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다니엘서를 무스타포 아빠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전도는 하지 않았지만 세 권의 구약 성경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타직 현지에서 전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가 있었다.

##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다>

며칠 후 무스타포 아빠에게 룻기에 나온 이야기를 갖고 조심스럽게 전도를 시도해보았다. 이야기가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아이 아빠 마음이 온통 아들에게 가 있었고, 무스타포가 자꾸 내게 말을 거는 바람에 이야기는 깊이 진전되지 못했다. 다른 날,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별주기 원하시기 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역시 무스타포가 옆에서 방해를 놓는 바람에 깊이 있는 이야기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거꾸로 무스타포 아빠는 무슬림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내게 긴 시간 이야기를 했다(내게 전도를 한 셈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마세호’가 무슨 뜻인지를 물었다. 타직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소이 마세호’라고 부른다. 기도해줄 때마다 맨 마지막에 ‘이소이 마세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다. 이 기회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마세호’란 뜻은 세상의 왕이시고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그가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그를 믿은 사람은 모두 무죄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마세히 (그리스도인)’라고 한다고 설명해주었다. 그는 이런 내 설명을 듣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묻지는 않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슬람 이야기만 잔뜩 들어놓았다. 반응이 별로였지만 무스타포 아빠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순간이었다. 나는 그를 설득하려하지 않았다. 그가 물어온 것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얘기해주었다.

무스타포는 어린이날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흥측한 얼굴 대신 미소년의 온전한 얼굴을 선물로 받았다. 한국에 머문 28일 동안 아빠는 총 3권의 구약 성경을 읽었고, 내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소이 마세호’의 이름을 들었다. 나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들었다. 나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 그래서 억지로 설득하지 않으려했고, 담담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했다.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려 했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애썼다.

무스타포와 그의 가정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는 내가 프린트해 준 성경을 집에 가져가서 계속 읽겠다고 했다. 말씀과 성령께 마흐마드쇼와 그의 가정을 맡긴다. 아빠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 권의 구약성경 이야기가 새겨졌다. 그가 당장 믿지 않더라도 재미있게 읽은 성경 이야기들을 무의식중에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기대해본다. ‘나오미’의 땅을 대신 물려준 ‘보아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내 대신 의무를 다하고 내가 잃어버린 유산을 대신 찾아주는 롯의 이야기’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을 기적적으로 구한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이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일에 ‘살아있는 돌’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자같이 생긴 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기억이 새겨져 ‘메시야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무스타포 아빠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인자같은 이’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실 리는 없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MVP



정찬송 단기선교사

#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이집트의 첫인상은 황색도시다. 공항에서 나오자 눈앞에 펼쳐졌던 황토 빛 건물들과 모래가 덮인 나무들은 내가 이집트에 와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식재료를 사기 위해 들른 시장은 신기하고 낯설고, 어려운 곳이었다. 아랍어를 모르는 나에게 시장 아저씨, 아줌마들의 빠른 아랍어는 너무 어렵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지하철 표 사용법을 몰라 멀뚱멀뚱 서있기도 했고, 부주의함으로 지갑을 잃어버려 마음이 어렵기도 했다.

이집트의 교통은 정말 최악이었다. 차선의 개념이 없는 도로에는 신호등은 물론, 횡단보도도 없다. 심지어 차와 함께 마차가 달린다. 1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이집트에서 길을 건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셨다. 허선생님과 노선생님은 일 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나를 돌보아주셨다. 노선생님은 자주, 거의 매일 귀한 양식을 가지고 센터를 들리셨다. 이집트에 있는 내내 한국음식을 사랑하는 나에게 선생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향수병을 예방하는 예방접종 같았다. 허선생님은 단기선교사들을 항상 걱정하시며 최선의 방법으로 선교훈련을 짜려고 노력하셨다. 허선생님의 네명의 아이들은 언제나 나를 보면 반갑고 신나게 맞아 주었다. 단기선교의 기간 동안 감사했던 것을 꼽으라면 좋

은 장기선생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짧은 준비기간 동안 기도를 못한 부분이여서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

이집트에 있는 동안 안전문제로 여행에 제약이 따랐지만 나름 이 곳 저 곳 돌아다녀 볼 수 있었다. 사막에서 바라 본 피라미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는다. 이집트를 돌아다니며 이집트의 역사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한 재미있었다. 기억 남는 장소 중에 마가교회가 있다. 성경에서 보던 마가가 순교하기까지 선교했던 곳이 이집트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배우며, 실제 그 장소에 서있는 것은 매우 귀하고 감동이 되었다. 바울과의 선교 여행에서 도망쳤던 그 마가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며 위로가 되었다.

단기선교기간 중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영어와 아랍어 공부였다. 영어 학원은 친구들을 사귀고,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는 장소였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와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영어공부는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랍어는 정말 어려운 언어였다. 하지만 현지 사람들과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집트는 매우 덥다. 7, 8월의 건조함과 따가운 햇살은 내가 건초더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여름에 이집트 사람들은 라마단을 시작했다. 이 때는 학원도, 가게들도 대부분 쉰다. 라마단 때의 저녁식사는 특별하다. 친구들의 초대로 두 번 정도 라마단 저녁식사에 참여했다. 한 번은 나일강 위에 배를 띄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었다. 라마단기간의 저녁은 이들에겐 축제와 같다. 이집트 사람들은 흥이 많고 외향적이다. 밥을 먹고 배 위에서 친구들의 춤사위가 펼쳐졌다. 이슬람 스터디를 하며 배웠던 라마단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추석 때는 이집트 친구들에게 한국음식을 대접하고 한복입기와 윷놀이를 했다. 이 시간이 오래 관계 맺어온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함께 감사 목록을 적고 선물로 아랍어 성경도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길, 그들에게 전해진 성경이 열매 맺길 기도한다.

이집트 삶의 일과 중 중요한 일은 중보기도였다. 주 4일 센터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집트와 중동, 북아프리카를 위해 중보 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 이슬람지역에 대해 잘 모르던 나에게 무슬림에 대한 하나님의 궁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때론 너무 막연하고 신뢰가 되지 않아 의심과 의문 속에 기도하며 씨름 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 한국에서는 잘 묵상해보지 않았던 단어였다. 마땅히 찬양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받지 못하는 땅이 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의 진실한 사랑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웠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니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길 소망하게 되었다. 또한 무슬림들이, 회교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지막 단기선교의 일정은 터키였다. 터키로의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다. 출국 당일 날 티켓날짜가 잘못된걸 알게 되고, 밤을 새며 공항에서 대기해야하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다. 터키는 이집트와 달리 춥고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다. 일주일간 터키 앙카라에 머물며 시리아, 이라크 난민들에게 아랍어 성경을 나눠주었다. 그들에게 말을 붙이며 더듬더듬 아랍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 어색했다. 그들은 나의 말을 알아듣지만 나는 못 알아듣는 웃긴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었다. 성경을 읽어 보고 싶었다는 사람, 고맙다고 해준 사람 등등...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처음과 달리 그들은 친절했고 열린 마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곳에서 아랍권 난민 뿐 아니라 이란과 아프간 난민도 만날 수 있었다. 한 아프간 자매가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의 말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울던 것이 아직도 마음에 많이 남는다. 한 젊은 이라크 친구가 성경에 대해 물어보는데 아랍어가 짧아 설명해주지 못했던 것이 아직도 슬프다. 이슬람에 거대한 장벽이 약화되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이 수많은 난민들은 이슬람 선교의 열린 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은 그 말이 더 와 닿는다.

이집트에서의 한해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에피소드들이 지나간다. 막연히 생각했던 선교지에서의 삶을 짚거나마 경험하며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다.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더 많이 맺지 않고 안주하는 모습,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예전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시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잘 못하던걸 타국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로 교회와 선교단체를 섬기며 높아졌던 나의 교만이 꺾이어 겸손히 나의 위치와 연약함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스스로를 의지할 때 오는 좌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로 바뀌었던 것 같다. 정말로 내가 연약하구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며 감사한 일이 되었다. 나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을 잘 아시는 분이 그 곳으로 나를 친히 부르셨다는 것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겠다며 선택했던 1년의 시간이 도리어 섬김 받고 누리며 풍성해지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으로 갈 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다. MVP



김경문 집사 / 덕포교회

## 덕포교회 선교학교 이야기

**할렐루야!** 제4회 선교학교 수료를 하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4월 한 달 동안 선교학교 홍보를 위해 이웃 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포스터를 만들고, 교우들에게 선교학교 홍보를 하였지만, 매년 시들시들한 반응에 나의 얼굴과 마음에 주름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았다. 5월은 특히나 공휴일도 많고, 가족들과 나들이하기도 딱 좋은 계절이라 선교학교를 시작하며 강사와 스텝들이 학생들보다 더 많은 상황을 걱정했었지만 개강 당일 17명이나 참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 마음에 주름이 조금 펴지는 걸 느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곧 확신은 배움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일 것이다. 어떤 일을 할에 있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그 일의 승패 여부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다. 열정만으로 잘할 수 없기에 선교학교를 해마다 실시하여 훈련과 교육을 통해 선교의 기초를 잘 다지고,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선교학교를 4회째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학교 등록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한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뿐이다. 매년 소수

의 인원이 선교학교를 수료하지만 벌써 4회째 하면서 그동안 많은 인원이 수료를 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선교학교를 열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선교관심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통해 열방 가운데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 강력하게 믿는다.

첫 번째 주 강의는 MVP 이갈렙 선교사님께서 “선교의 성경적 기초”와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두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선교사역의 변화에도 선교의 목적과 기초는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 강의 중심내용이었다.

두 번째 주 강의는 구영삼 선교사님께서 비즈니스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십일조 현금, 감사현금 등 여러 종류의 현금을 드리면서 선교 현금으로 드리는 비율과 교회 재정 중 선교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 비즈니스 선교와 자비량 선교가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겠지만 목적은 아니다. 비즈니스 선교와 자비량 선교는 성경적 방법이고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꼭 필요한 선교 방식이라 생각 된다.

세 번째 주 강의는 전상일 선교사님께서 “세계 선교 동향과 우리의 역할” “선교적 공동체”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다. 통신 교통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의 왕래와 소통의 벽이 대부분 사라진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구시대적 선교 방식을 버리고 어떻게 이 시대에 맞는 선교 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다.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과거의 방식을 점검하고 현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무엇인지 또한 많은 사람이 아닌 소수의 훈련된 정병이 요구된다. 2강 선교적 공동체 강의 시간에는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 갈 것인가에 대한 강의였다.

4주차 마지막 강의로 종족 입양 선교에 대한 강의를 MVP 본부장 한수아 선교사님께서 해주셨다. 종족입양 사역의 핵심은 분담, 연합, 중보기도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선교사만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내에 선교 조직을 잘 갖추어 전문화 되고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된다.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다보면 성경적 지식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 이번 선교 학교는 전년과 달리 교회 장로님들이 선교학교에 네 분이 참석 하시고, 두 분이 수료를 하셨다. 그리고 고등부 학생 2명이 같이 수료를 하였다. 교회 중직들은 대부분 교회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 못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성장한 후에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이다. 극단적으로 교회는 성장과 관계없이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심판날에 교회가 성장 못했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선교 학교에 두 명의 고등부 학생이 수료를 하게 된 것은 미래 세대를 향한 선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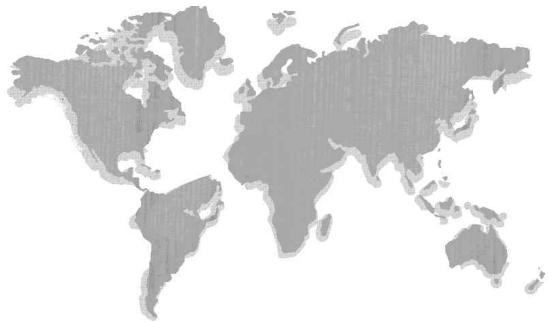
조기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중고등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한 결과이기도 하다. 비록 올해는 두 명이 수료를 하였지만 이 두 명이 내년에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단기선교까지 가게 된 것은 너무나 잘 된 일이다. 단기선교 경비의 많은 부분을 이 학생들에게 지원해야하는 부담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선교 학교가 단기선교에 앞서 열리는 것은 단기선교사가 선교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기 위함이다. 이번에도 단기선교에 동행 하는 분들이 열 명이 가게 되는데 이들이 단기선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며, 선교지와 선교 대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길 기대한다.

이번 선교학교에 모범상을 받은 김옥순 집사님은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관 3층까지 올라오셔서 매 강의 시간마다 노트에 메모를 하시고 질문도 하시며 선교훈련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일에 성실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배우고 추구해야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듈다. 그리고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준비한 게스트 룸을 올 해 선교학교 때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게스트 룸은 숙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가능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했다. 게스트 룸을 건축하고 제일 먼저 구영삼 선교사님 부부가 숙박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많은 선교사가 이 게스트 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교사님들에게 때로는 사역보다 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피로한 심신으로 국내에 들어와 마땅히 쉴 곳이 없는 선교사님들이 부담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 교회 게스트 룸이 회복과 소망의 장소인 로템나무로 쓰임 받기를 바래본다.

끝으로 이번 제 4회 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덕포의 지체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위대한 선교의 비밀을 이해하고 삶의 자리마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 교회 안에 선교의 동력이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오직 사명 하나로 서울에서 거제까지 오가며 선교학교 강의를 맡아주신 MVP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MVP**

# MVP선교회

## 새로식입니다



### 1. 열방콘서트

MVP의 열방을 향한 뜨거운 예배 “열방콘서트”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열방콘서트가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역주관을 하지 않고 선교 동원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3월 19일에는 말씀(한수아 선교사)과 정찬송 단기 선교사의 이집트를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VM 훈련생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16일에는 말씀(김홍빈 선교사)과 누사배 선교사의 미얀마 버마족을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VM 훈련생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21일에는 말씀(이수진 목사)과 전해솔 간사의 열방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6월 18일에는 말씀(한수아 선교사)과 ‘고넬료의 초청(타지키스탄)’ 여행 보고 및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 2. 글로벌교회개척학교 개강

2015년 3월 9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교회개척 배가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7월에는 교회개척 탐방을 위해 터키와 이집트로 아웃리치를 가게 됩니다.

### 3. VDS I & II 개강

3월에는 벤사원에서 작년부터 주관하던 벤사원스쿨 I 뿐만 아니라 퍼스펙티브스를 강독하는 VDS II를 추가로 개강하여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벤처선교사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사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4. 리사원 협력연구원 활동

2014년 10월~ 2015년 3월 6일 진행된 리서치 심화훈련 1기 수료자 8명이 리사원 협력연구원으로 전방개척지역 10권역(MVP선교회 타겟지역) 현장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한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통해 연구과정을 보고하고, 보다 효과적인 현장 사역 전략 수립을 위해 현장 사역자들과 소통하며 자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5. 본부사역자 봄 나들이

2015년 4월 21일(화)에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쉼과 사역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6. SVM 30기 수료

2015년 상반기 SVM 훈련이 3월 13일에 개강하여 5월 16일 수료식을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처음 발행된 표준강의안으로 진행되어 더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수료자: 10명, 이수자: 1명, 매주 토요일 10:00 ~ 14:30 / 10주)

## 7. 카작족 네트워크 모임

지난 5월 29일 저녁 7시 꿈이 있는 교회(광흥창역 3번출구)에서 카작족 네트워크 모임이 있었습니다. MVP선교회, 꿈이 있는 교회, 남서울IVF, 덕포교회 카작족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사역보고 및 키작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네트워크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8. VTT 11기 수료

2015년 6월 29일 ~ 7월 11일까지(2주간) 장·단기선교사 합숙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 9. 찾아가는 지역교회 선교훈련

2015년 5월 9일~5월 30일(4주 간 매주 토요일) 거제도 덕포교회에서 4기 선교훈련을 선교사님들의 섬김과 교회의 열심으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 10. 단기선교사 홈커밍데이

2015년 6월 13일 단기 선교사를 대상으로 본부가 주관하여 홈커밍데이를 가졌습니다. 오래간만에 모여 즐거운 교제와 현장에서의 경험과 아쉬웠던 점 등을 나누며 본부가 앞으로 단기선교사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의 필요와 중요성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1. 고넬료의 초청

2015년 8월 3일~8월 14일 전상일, 이현(2명)이 이란으로 고넬료의 초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12. 금식기도회

4월(2일), 5월(7일), 6월(4일)에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금식기도는 8월(6일) 9월(3일), 10월(1일)입니다. 매주 첫째 주 목요일에 금식기도를 합니다. 금식기도는 외부로 나가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여하실 분들은 본부에 문의 바랍니다(02-703-1215).

## 13. 중보기도 팀 모집

MVP선교회 10개 권역의 선교지 및 선교사님들을 위한 정기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매월 2째 주와 4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MVP본부에서 진행되며 아울러 중보기도회를 이끌어갈 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문의바랍니다(02-703-1215).

# 선교사 소식

## 선교사 출입국

02월 28일 채열매 선교사 입국  
03월 03일 김계원 선교사 출국  
03월 04일 제이콥리 샤론박 선교사 출국  
    정해명 강유진 선교사 출국  
03월 07일 이길 한마음 선교사 가정 출국  
03월 16일 채열매 선교사 출국  
03월 19일 누사배 선교사 입국  
03월 24일 한밀알 선교사 입국  
03월 25일 김소니아 선교사 출국  
03월 30일 한밀알 선교사 출국  
04월 10일 최웅수 이여옥 선교사 출국

04월 16일 이만민 나기쁨 선교사 출국  
05월 04일 이복애 선교사 입국  
05월 06일 누사배 선교사 출국  
05월 30일 이복애 선교사 출국  
05월 31일 이바실 선교사 이하준 입국  
06월 06일 전빌립 김루디아 선교사 가정 입국  
06월 09일 탁요셉 선교사 탁은지 입국  
    김수오 성복희 선교사 가정 입국  
06월 15일 최웅수 이여옥 선교사 입국  
06월 23일 보배 선교사 입국  
06월 28일 제이콥리 샤론박 선교사 입국

## 허입/파송

03월 08일 전상일 차윤주 선교사 파송 / 3월 26일 조영승 선교사 허입 / 나종숙 선교사 허입 / 전상일 차윤주 선교사 허입  
    추근호 채길자 선교사 허입  
06월 12일 민슬기 장사라 선교사 허입

## 2015년 2월 ~ 5월 본부 후원자

강길용(4) 강상모(4) 강상훈(4) 곽정인(3) 구명옥(4) 김경동(4) 김단비(1) 김미석(2) 김성규(4) 김수오(4) 김승관(4) 김영복(4)  
김영이(2) 김유리(4) 김정한(4) 김종근(4) 김진철(4) 김철우(4) 김학성(3) 김현곤(4) 김형복(1) 김혜란(4) 김홍빈(3) 노병인(4)  
박건부(4) 박규태(1) 박미애(3) 박미영(2) 박병현(4) 박상윤(4) 박용신(4) 방민경(3) 방은미(3) 서연주(4) 서정희(4) 신동규(4)  
신윤이(3) 신현경(4) 연인흠(4) 오샛별(4) 오설란(4) 오요셉(4) 오희순(4) 유경희(1) 유병희(2) 유상범(4) 유영수(3) 윤여광(1)  
이경애(4) 이동욱A(3) 이동욱B(4) 이보람(2) 이상연(4) 이새암(4) 이승규(4) 이승원(4) 이여변(4) 이유경(2) 이유리(3) 이웅복(4)  
이재선(3) 이재춘(4) 이종훈(4) 이주용(4) 이지혜(4) 이종식(4) 이판호(2) 이 현(1) 이현경(1) 이희정(4) 전해솔(3) 정다은(4)  
정성희(1) 정소라(1) 정용환(1) 정유라(4) 정윤모(4) 정정주(4) 정현실(3) 조명순(4) 조영남(4) 조정주(3) 조희선(4) 지경준(4)  
진 현(2) 최상규(3) 최용재(1) 하명수(4) 한유경(4) 한은영(4) 한정국(4) 한천희(4) 허종현(4) 홍성원(4) 황두환(4) 황운이(4)

김민영/손인종(4) 김지혜/김지은(4) 이태훈/이태욱(4) 정성진/은연옥(4)

(주)에네스산전(3) 고현교회(4) 공종훈(하영통신)(4) 그소망교회(4) 꿈이있는교회(4) 남서울은혜교회(4)  
불댄동산수림교회(4) 분당친구들교회(3) 산돌중앙교회(4) 성실교회(3) 달방(1) 엠피코퍼레이션(주)(4)  
예수비전교회(4) 은진교회(1) 인천송월교회(3) 임마누엘(4) 조경순(ks투어)(4) 질그릇터(3)

## 후원방법

1. 본부 계좌: 국민 012501-04-182812 MVP선교회

2. 전화신청: 070-8260-5518

이사 등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바뀔 경우, 저희 본부로 연락주시면 변경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후원 늘 감사드립니다.

# 후원계좌번호 안내

(거래은행 : 국민은행)

MVP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의 후원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본부에서의 원활한 재정 관리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후원계좌를 본부가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명단을 확인해보시고, 현재 재정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계좌번호와 다를 시 아래의 계좌로 변경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324790으로 시작되는 계좌번호는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아래의 번호로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농협, 우리, 외환, 기업, 신한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외 선교사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014	탁요셉 김사라	터키	324790-29-000212	김소니아	파키스탄
324790-29-000027	김순심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225	전빌립 김루디아	타지키스탄
324790-29-000030	김계원	카자흐스탄	324790-29-000238	이바울 고예은	丫회사
324790-29-000043	장선우 정순달	말레이시아	324790-29-000241	이길한 마음	베트남
324790-29-000069	제이콥리 사론박	중국신장	324790-29-000254	누사배	미얀마
324790-29-000072	허드슨 노비비	이집트	324790-29-000267	박수보	중국신장
324790-29-000085	채열매	타지키스탄	324790-29-000270	신미래	UAE
324790-29-000098	한밀알 글로리아	터키	324790-29-000283	이만민 나기쁨	이란
324790-29-000100	이갈렙 박은혜	타지키스탄	324790-29-000296	박동행 김조이	타지키스탄
324790-29-000126	한수아 임하경	중국신장	324790-29-000308	김기용 정은미	이집트
324790-29-000142	하바나바 흥화락	요르단	324790-29-000395	이삭 열매	이집트
324790-29-000155	김수오 성복희	이스라엘	324790-29-000337	이복애	베트남
324790-29-000168	데이빗 드보라	베트남	324790-29-000340	엄미족 정부홍	중국신장
324790-29-000171	김게바 흥알마	중국신장	324790-29-000353	보배	이집트
324790-29-000184	신여호수아 윤사랑	터키	324790-29-000407	정해명	중국신장
324790-29-000197	신길벗 이루리	말레이시아	324790-29-000465	다니엘조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209	장승리 유열매	카자흐스탄			

## 국내사역 선교사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139	한정국	KWM A	324790-29-000410	김홍빈 김영미	캡사원 원장
324790-29-000324	아굴라 브리스길라	벤사원 원장	324790-29-000436	전상일 차윤주	훈련동원 총무
324790-29-000113	김인애	리사원 원장			

## 국외 센터 / NGO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366	이집트M센터	이집트	324790-29-000382	하베스트코리아	타지키스탄
324790-29-000379	모라비안센터	터키			

## 본부기금 및 산하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012501-04-182812	MVP선교회	본부	762301-04-235022	청소년캠프	청소년캠프
055201-04-130496	MVP선교회	10권역 기금	762301-04-193960	MVP선교회	벤사원 기금
055201-04-130470	MVP선교회	MK기금	055201-04-130467	MVP선교회	리사원 기금
762301-04-169624	MVP선교회	건물기금	762301-04-193957	MVP선교회	캡사원 기금
762301-04-226167	MVP선교회	간사기금			

계좌이체가 번거로우실 경우, 홈페이지([www.mvp.or.kr](http://www.mvp.or.kr))에서 미션플러스(CMS 후원) 신청도 가능하며, 본사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02-703-1215).

# 2015 벤처선교훈련학교

# SVM

## School of Venture Mission

21세기 선교상황은 우리에게 개척, 도전, 모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벤처선교가 필요합니다!

일시

30기 SVM 3월 13일 ~ 5월 16일  
(OT캠프 3월 13일~14일 / 선교캠프 4월 24일~25일)  
토요일 AM10:00~PM2:30

31기 SVM 9월 12일 ~ 11월 21일  
토요일 AM10:00~PM2:30

### 왜 벤처선교인가?

- 이론과 현장의 만남
- 현장 선교사들의 실제적 강의
- 개인의 은사를 통해 함께하는 팀 선교
- 현 시대의 선교동향에 맞는 전략적 선교



장소 MVP선교 서울본부 벤처출(6호선 망원역 2번 출구, 도보로 3분)  
학원비 25만원(개강 2주전 선동록 시 23만원) \*국민은행 762301-04-191966 예금주: 서울SVM  
문의 MVP 선교회 / TEL : 02-703-1216, E-mail : svmkorea@gmail.com, www.mvp.or.kr  
강의 OT캠프 / 세계선교역사 / 미전도종족선교 / 리서치선교(RM) / 캠퍼스&교회개척선교(CM) / 선교동원  
비즈니스선교(BM) / 선교현장과 충보기도 / 선교캠프 / ACTION DAY(일일 선교문화체험) / 선교본부장,  
강사 신동우(MVP선교회 이사장), 조명순(한국형 선교개발원 대표), 한수아(MVP선교회 본부장), 김홍빈(캠퍼스사역개발원장) 등.

### 고넬료의 초청(여름, 겨울 선교여행) MVP선교회

10개 전방개척권역으로 선교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인도차이나(미얀마, 베트남) / 중국 무슬림(중국 신장)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 페르시아1(이란, 터키)

페르시아2(타지키스탄, 파키스탄) / 초승달지역(요르단, 레바논)

북아프리카(아랍트, 모로코) / 아라비아반도(오만)



MVP 선교회는 1999년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모험, 도전, 개척정신으로  
사역하고 있는 최전방개척선교회입니다.